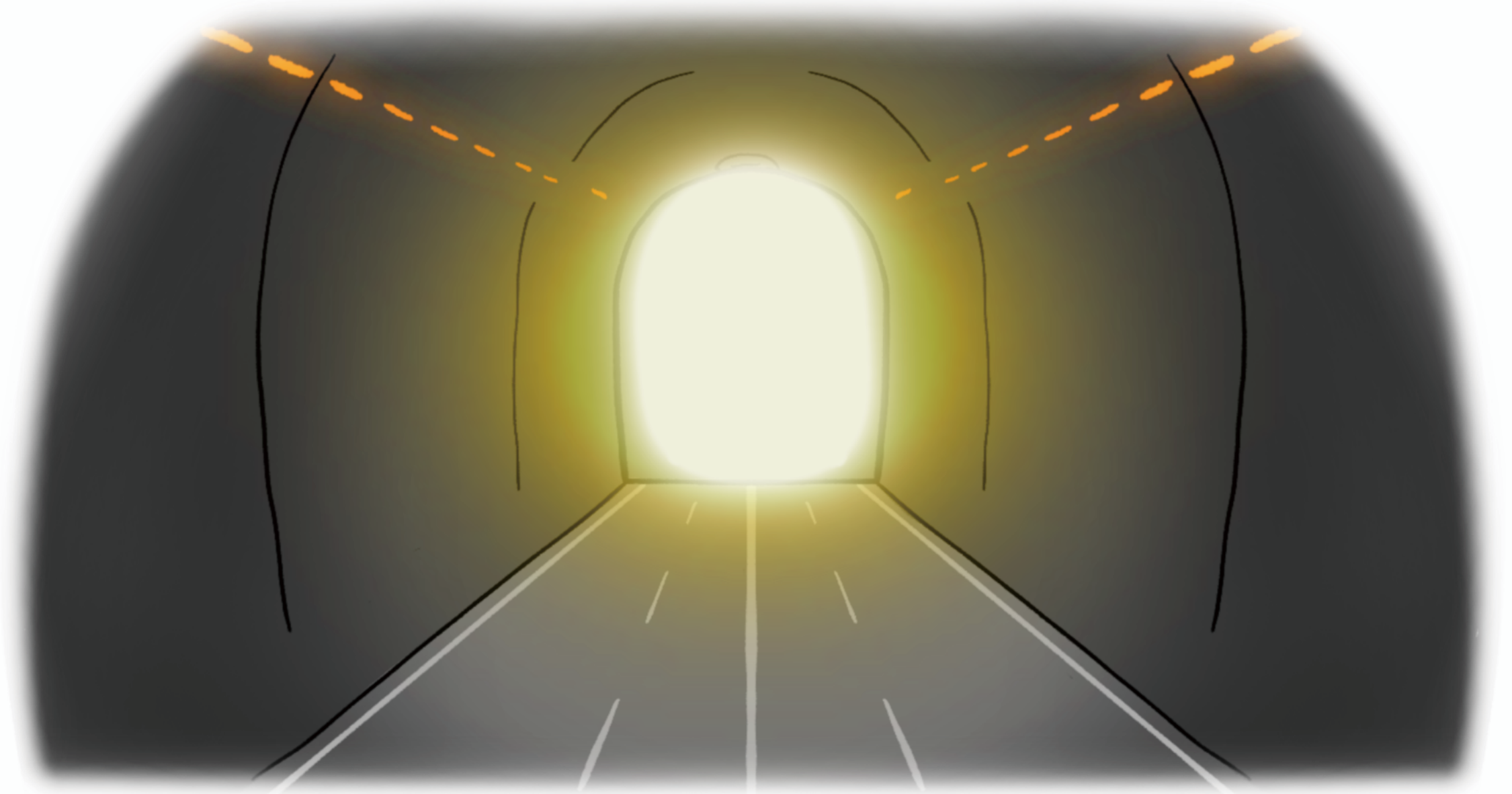


내 삶에 빛이 되어준 자활사업 & 희망키움통장 II

제19회 자활성공수기집 중 발췌 및 각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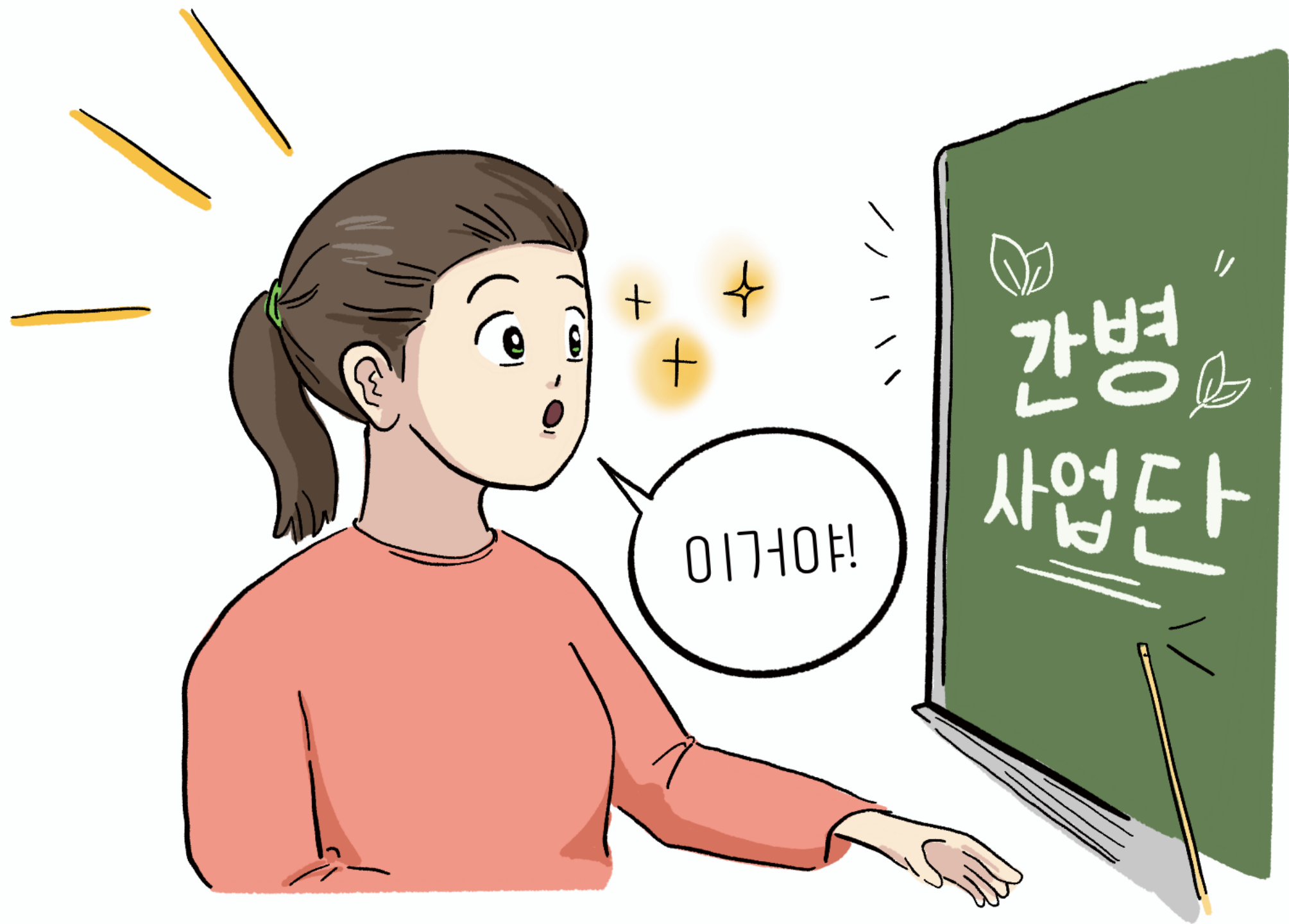


**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오갈 데 없던
우리 부부는 태어난 지 6개월 된 쌍둥이를 안고
남편의 고향 흥성을 찾았다.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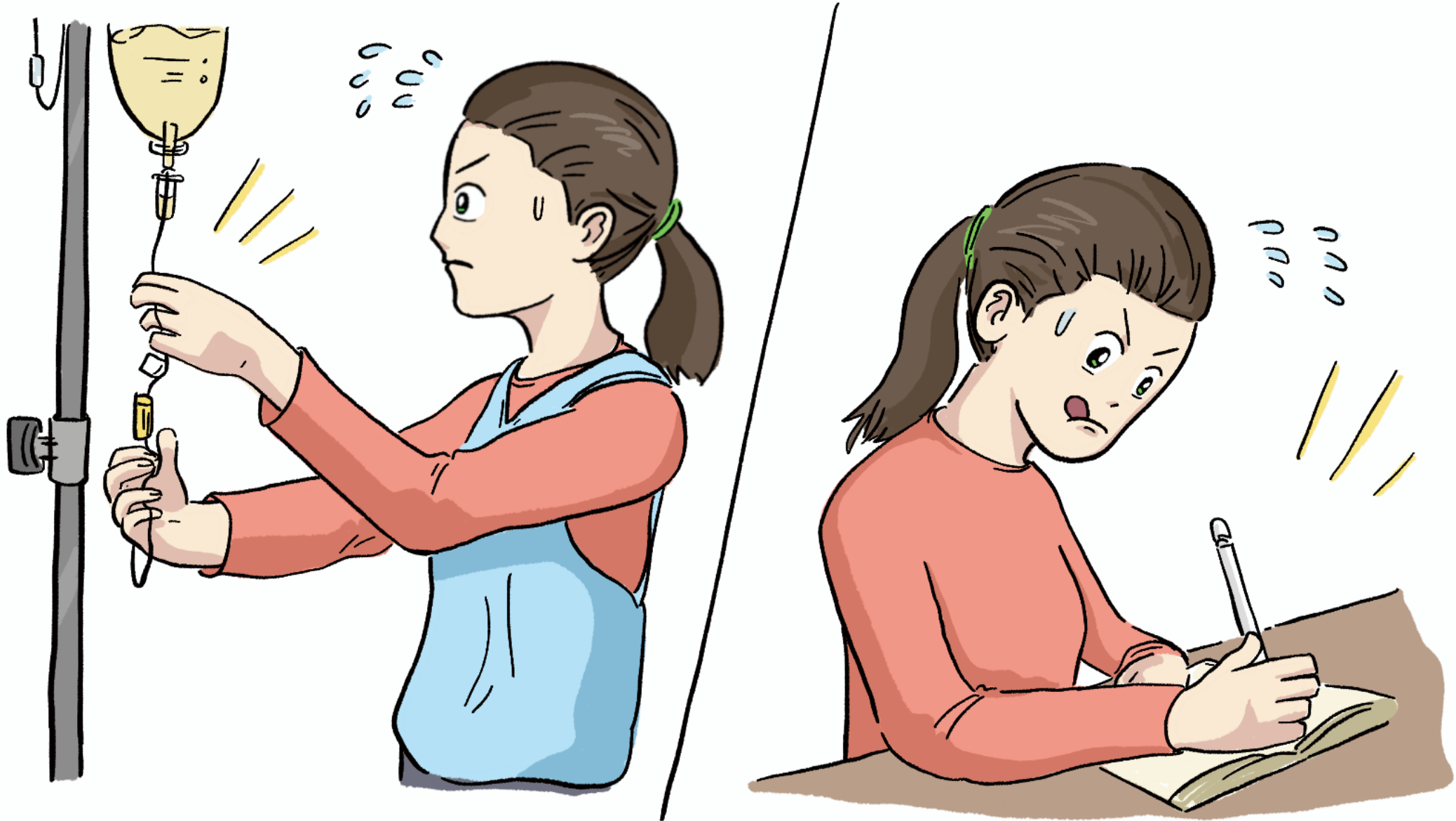
지역
자활센터

**전입신고를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제도 신청을
하게 되었고, 아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
일자리를 물어보니 지역자활센터를 소개받았다.**



**두려움 반, 걱정 반으로 방문한 자활센터에서
자활센터란 어떤 곳인지 설명을 들었는데
그중 간병사업단의 이야기가 나의 귀에 속 들어왔다.**

**나는 주중에는 자활참여자로 간병사업단에서 일을 하고,
주말에는 왕복 8시간 거리의 대학교를 2년 동안 다녔다.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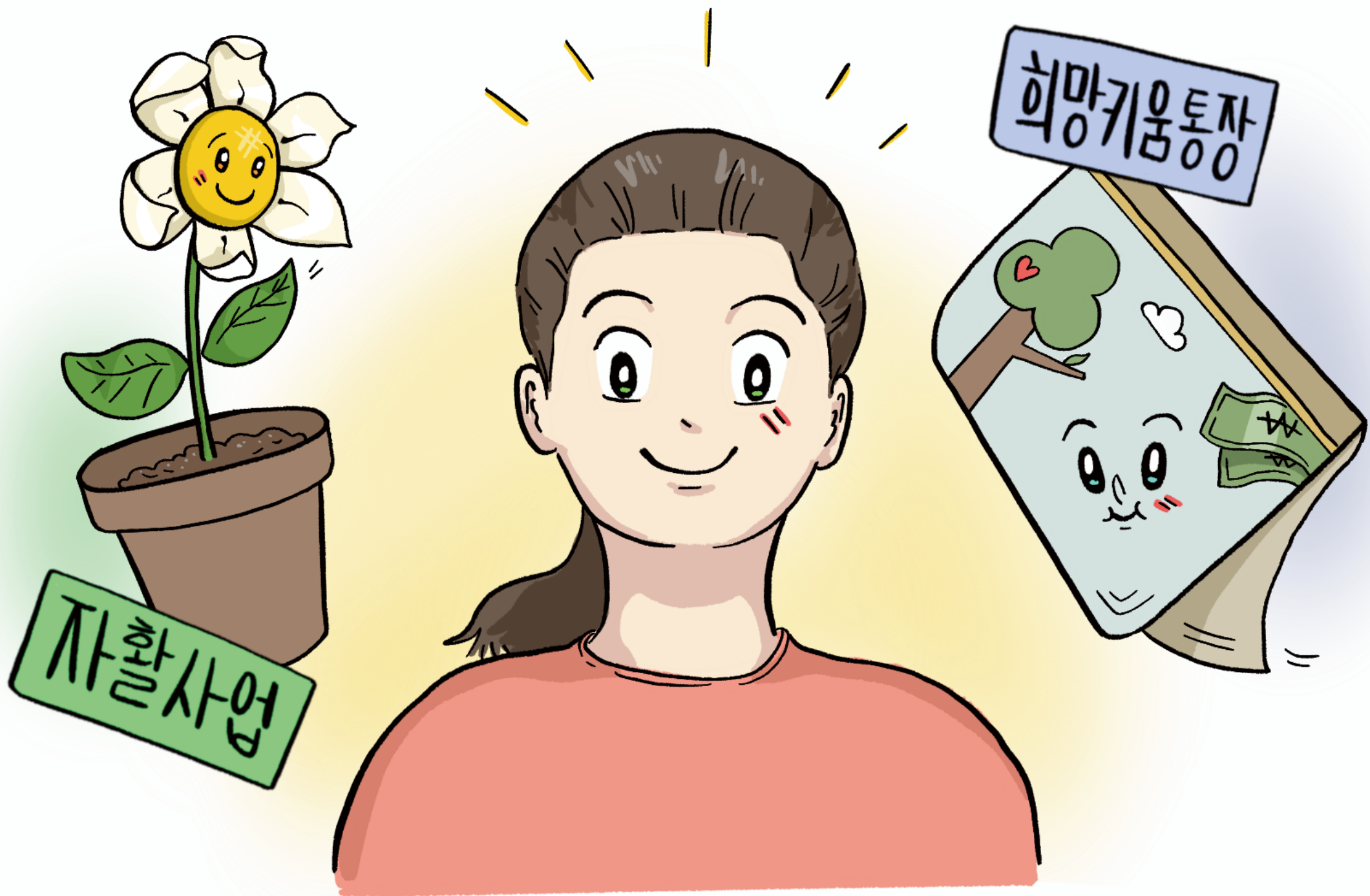
**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
사회복지사 2급, 보육교사 2급,
더불어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었다.**



**그러던 중 희망키움통장 II 를 가입하였고
하루하루 커 가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미래를 계획하였다.
19개월 이후 기준 중위 소득 70%를 초과하게 되어
해지를 하였고, 적금의 2배가 되는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.**

**그동안 열심히 일한 결실로
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루게 되었다.
내 손의 등기부 등본을 몇 번이나 어루만지며
아이들과 행복을 만끽했다.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었다.**





**자활사업과 희망기움통장Ⅱ는
긴 가난의 터널 같은 절망 속에 있었던
우리 가족에게 삶의 빛이 되어 주었다.
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도전하면 삶에 희망이 열릴 것이다.**